

장흥 “암 치료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내요”

4~7월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오는 19일부터 7월까지 가정에서 요양 중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암 자조모임은 환자와 가족 간에 암 극복 사례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불면증 관리교육 ▲아로마테라피 ▲웃음치료교실 ▲항암 발효식초 만들기 ▲마음건강치유센터 힐링프로그램 체험(헤어스파, 항암 약죽, 온열테라피,

뜸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약 1/3은 완치가 가능하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암 자조모임이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과 격려가 되어 암관리와 극복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환자를 위한 암정보 교육과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함평,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약분야 실무교육



함평군이 최근 부패취약분야인 계약분야에 청렴도 향상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분야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약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파견 근무 중인 권혁훈 계약전문관이 강사로 초빙돼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사업담당자가 쟁겨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권혁훈 강사는 충남 부여군에서 공직 생활 동안 쌓은 실무경험을 활용, 실무적인 어려움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동안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이 계약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성,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 운영

전문가 557명, 민원·재산권 보호·복지 등 다양한 활동

“군민 삶으로 더 가까이” 주민 감동 행정서비스 지역 활력

장성군이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을 중심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행동단’은 △휴(休), 군민이 편안한 장성 △먼저 찾아가는 행정 △ ‘주민 감동 프로젝트 추진단’의 줄임말이다. 공직자, 기관, 자원봉사자, 전문가 557명이 ‘휴먼행동단’에 소속되어 있다. 기존 ‘찾아가는 사업’을 총망라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최근 진원면 선적리 덕천마을 회관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열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 주민의 민원 접수를 도왔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신문고에 등재했다.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도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육군 최대 군사학교 상무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도 운영 중이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

소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무대 교육생은 업무시간 내 신고가 어려워, 전입신고팀이 접수를 돕는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도 지원한다. 장성군은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있다. 이달 중 소도마을회관

(11~12일), 이문마을회관(15~16일), 생동경로당(17~18일), 선촌마을회관(22~23일), 신평·거마마을회관(24~25일)에서 차례로 열린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도 실시 중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 분야를 넘어 고령 주민의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기강화교실’도 운영한다. 치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65세 이상 주민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체조, 인지워크북, 공예교실, 원예요법 등 다양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의 삶을 지원하는 데 행정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장성군 찾아가는 행정 브랜드 ‘휴먼행동단’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나주,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시동... 명품 한우 생산 기반 구축

사업비 2억원 투입... 우량 송아지 선발 등 한우 개량사업 추진

한우 주산지로 꼽히는 나주시가 명품 한우 육성 기반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의 ‘2024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혈통이 등록된 고능력 번식 암소 농가에 우선 능력 검사, 선형심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

우량암소와 송아지를 선발·관리하고 으뜸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선 우량암소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나주시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 암소 사육 비율이 전체 한우 5만8334두 중 약 70%인 3만5724두에 달해 사업 최저치로 꼽히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4월 중 설명회를 갖고 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농가 모집 후 선형심사, 전자확인 등을 거쳐 으뜸한우 송아지를 선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나주축협 우(件)시장에서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명품한우 육성체계 구축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으뜸한우 사육 및 생산·유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관련 산업이 부족하고 특히 나주 한우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나주 한우 브랜드가 전국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허필수 기자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

영광, 7389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본예산 6645억원 대비 744억원, 11.2% 증가

영광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6,645억원 대비 744억원(11.2%) 증가한 7,389억원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844억원 대비 598억원(10.23%)이 증가한 6,442억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는 본예산 801억원 대비 146억원(18.23%) 증가한 947억원이다.

제1회 추경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1,807억원(181억원 증),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64억원(151억원 증), 농림해양수산분야 1,503억원(133억원 증), 교통및물류

분야 454억원(74억원 증), 환경분야 767억원(73억원 증)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사회복지) 공설 장사시설 건립 92억원(73억원 증),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52억원(43억원 증),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억원(32억원 증)

(국토및지역개발) 도량 농공단지 조성 50억원(23억원 증), 곤울재 도로 개설 15억원, 도시재생 활성화 22억원(15억원 증), 불갑산하이패스 IC 건설 21억원(11억원 증), 지적재조사 사업 19억원(10억원 증)

(농림해양수산) 연안정비 3개지구 31억원(16억원 증), 다 같이 들자 성

산 한바퀴 15억원, 스마트팜 육묘장 조성 11억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8억원

(환경) 하수도정비 사업 4건 151억원(31억원 증),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64억원(21억원 증), 영광 제2정수장 개량 28억원(14억원 증) 등이다.

강종만 군수는 “건전한 군 재정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을 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제1회 수북면민의 날 기념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

내일부터 이틀간 개최

담양군 수북면이 제1회 면민의 날을 맞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담양군 수북면사무소 광장 일원에서 ‘몽성산 피라미드 축제’를 개최한다.

몽성산(夢聖山)은 수북면과 대전면 경계에 자리하며 사람 인을 3개를 겹쳐놓은 모양새로 삼인산(三人山)으로 불린다.

이성계(李成桂)가 전국의 명산을

찾아 기도하던 중 꿈에 삼인산(三人山)을 찾으라는 성몽 끝에 담양의 삼인산을 찾아 제를 올리고 기도해 왕위에 등극하게 되자 몽성산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이런 설화를 가진 몽성산을 새롭게 부각시킬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축제 첫날인 12일 오후 5시30분에는 전야제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는 동치미에 출연중인 개그맨 최홍림의 사회로 트로트 가수 진이랑과 퓨전양상을 불량이 무대를 채

우며, 이어 주민노래자랑 예선이 펼쳐진다.

13일에는 이날치 기념비 이전 제막식과 이날치 계승 명창 공연, 국판종 장학금 전달식 등을 예정이며, 특히 고재중 작사, 이현성 작곡의 ‘수북의 노래’를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농특산물 전시 판매, 수제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손마사지 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담양=강성국 기자

화순, 전기차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 지원... 최대 100만원

화순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비공용 완속 충전시설 보급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사업 물량은 30대로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에 따라 사업 물량은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가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직접 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ihsak1016@horeak.kr)로 제출해야 하며, 충전기 제

조·판매사 현황과 기종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이후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수시 선정할 계획이다.

/화순=주용현 기자